

장기에 관련한 관용어

간이 크다, 간이 콩알만 해지다

간이 크다

관영어의 뜻 : 무서움을 모른다. 겁이 없고 매우 대담하다.

예문

어두운 밤길을 어떻게 혼자서 걸어 왔어? 너 참 간이 크다.

대화:

가: 운전을 잘 하시나 봐요.

나: 뭘요. 어제 운전면허증 땀어요.

가: 위험하지 않을까요?고속도로는 운전이 익숙해진 다음에...

나: 제가 간이 좀 커요!

간이 콩알만 해지다

관영어의 뜻 : 겁이 나서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

예문

선생님이 갑지가 소리를 치자 간이 콩알만 해졌다.

대화 1

가: 휴,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지?

나: 너는 시험 보는 날도 지각을 하니?

가: 알람 소리를 못 들었어. 시험이 시작된 줄 알고 간이 콩알만 해졌는데 정말 다행이다.

나: 췌, 선생님 들어오신다.

대화 2

제니: 민수 씨, 오랜만에 놀리 공원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.

민수: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어서 사진 찍으면 참 예쁘겠어요.

제니: 우리 신나는 놀이 기구도 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.

민수: 그래요. 제니 씨, 우리 저기 볼래요?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.

제니: 아, `귀신의 집`이네요. 민수 씨, 우리도 얼론 들어가 봐요.

민수: 들어가 봤자 유치할 거예요. 그냥 다른 데로 가요.

제니: 왜요? 재미있을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요.

-잠시 후-

제니: 우와, 정말 재미있었어요. 근데 민수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?

민수: 좀 놀라서 그래요. 아까 귀신이 갑자기 내 발목을 잡았을 때 간이 코알만 해졌어요. 진짜 기절할 뻔 했어요. 너무 긴장해서 걸어 다닐 힘도 없어요.

제니: 민수 씨가 이렇게 겁쟁이인줄 정말 몰랐어요.

몸 기타 관련 관용어

몸살을 앓다, 몸살(이) 나다

몸살을 앓다

관영어의 뜻 :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.

예문

늘어가는 쓰레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.

가: 부산 해운대 바다로 사람들이 휴가를 제일 많이 갔대.

나: 나도 그 뉴스 봤어. 우리도 이번 휴가는 해운대로 갈까?

가: 너 해운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는 못 봤어?

나: 걱정 마. 뉴스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휴가 갈 때쯤에는 깨끗할 거야.

몸살(이) 나다

관영어의 뜻 : 1.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 2. 너무 피곤해서 춥고 열이 나면서 아프다

예문

돈은 없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서 몸살이 날 것 같아요.

운동을 해서 몸살이 났다.

대화

딸: 엄마, 저 오스트리아로 유학 가고 싶어요. 모차르트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. 유학 보내 주세요. 네?

엄마: 뭐라고? 얼마 전까지 러시아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났었잖아. 발레를 배우겠다고 하지 않았니? 그런데 또 무슨 소리야?

딸: 발레보다는 피아노가 제 작성에 더 맞는 것 같아요. 보내 주세요.

엄마: 너처럼 번덕이 심한 애는 정말 처음 봐.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겠다고 할 거지?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!

딸: 엄마, 이번에는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. 제 친구도 오스트리아로 유학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가면 되잖아요.

엄마: 친구가 오스트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너도 가고 싶어진 거야?년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철들키는커녕 점점 어린애 같은 말만 하는구나.

마음 정신 속 관련한 관용어

마음에 두다

관용어의 뜻 :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나 의식하다.

예문

엄마: 우리 아들이 웬일이야? 운동을 다 하고.

아들: 저도 쌀 빼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려고요.

엄마: 너 마음에 두고 있는 아가씨가 있지? 그렇지?

아들: 잘 되면 말씀드릴게요.

마음이 굴뚝 같다

관용어의 뜻 : 무엇을 몹시 하고 싶거나 원하다.

예문

고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공부가 끝날 때까지 참기로 마음먹었다.

가: 제가 만든 케이크 좀 드셔 보세요.

나: 먹고 싶은 마음은 꿀꿀 같지만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.

가: 너는 직장 생활 안 힘들지?

나: 왜 안 힘들겠어?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꿀 같아.

가: 너나 나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했을 텐데...

가: 어느 직장이나 똑같아.

대화:

제니: 민수 씨, 아까 영화 보다가 즐았지요?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?

민수: 이뇨, 며칠 전부터 새벽에 아버지하고 조깅을 시작했는데요.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어요. 그리고 하루종일 졸려요.

제니: 처음에는 다 그래요.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건강에도 좋고 아침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.

민수: 그건 그렇지만 새벽마다 5 분만 더 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. 아참, 제니 씨도 같이 조깅하는 게 어때요?

제니: 미안해요.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미인은 잠꾸러기잖아요.

호호호.

정신(을) 차리다

관영어의 뜻 : 1. 잃었던 의식을 찾다. 2.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뉘우치고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다.

예문

가: 아버지, 제가 보이세요? 아버지 정신 차르세요.

나: 보호자 분, 진정하세요.

가: 의사 선생님, 저희 아버지 언제 괜찮아지실까요?

나: 조용히 해 주세요. 지금 화투 부분이 의식을 회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.